

제 목	국 문	전공의들의 전문적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영 문	Professional Job Perceptions of Interns and Residents and related Factors in Taegu ci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강윤식, 김신, 예민해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Kang Yune Sik, Kam Sin, Yeh Min Hae <i>dept of preventive medicin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보건의료관리		발 표 자	강윤식(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2월			

1. 연구 목적

94년 3월 현재 전체 취업의사의 30.5%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련기간에 따른 전공의들의 직업 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공의들의 직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의사로서의 바람직한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3개 수련병원(3차 병원 1, 2차병원 2)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96년 8월과 9월 2달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전문직업성, 직무만족도, 근무와 관련된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직이념과 전문직업성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구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 3개와 5개의 차원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대상전공의 575명중 297명이 응답하여 51.7%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이들중 남자가 85.2%였으며, 평균연령은 28.16(± 2.28)세였다. 56.8%가 기혼자였으며, 본인의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96.3%를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배우자의 직업이 의사인 경우가 47.1%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의사의 경우 배우자의 직업이 의사인 경우가 83.3%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중상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65.3%였고, 74.7%는 앞으로 의사들의 지위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응답한 전공의의 37.5%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하였고,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응답자전체의 73.9%를 차지하였다. 63.3%의 전공의가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답하였으며, 주당 3일 이상 당직을 서는 전공의가 전체의 51.2%였다 근무조건은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는 중이 56.5%로 가장 높았으며, 중상 및 중하가 각각 19.9%와 19.5%였다.

전문직이념척도는 인간요인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요인, 지위요인 순이었으며, 과학요인을 제외하고는 수련기간이 증가해도 연차간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전문직업성척도는 공격봉사심, 소명의식, 자율성, 자율적 통제에 대한 믿음, 전문조직에의 준거성순으로 점수를 나타냈으며, 모두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조직에의 준거성 차원과 자율성 차원은 연차간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자의 65.8%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59.6%가 의사직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답한 반면, 51.0%는 기회가 닿으면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31.5%만이 다시 대학을 간다면 의과대학에 가겠다고 답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전공의들은 비교적 이상적인 직업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직업에 만족은 하지만 다시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의사의 지위는 상충에 속하는 편이나 앞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의사들이 처하고 있는 의사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